

사회복지시설 탐방 18 효도공부방 원장 김일광 목사

“효도기본 방침으로 꿈과 희망을 심어줍니다”

효도공부방(원장 김일광)은 맞벌이 부부나 조실부모, 기출부모의 취약 전후의 자녀들이 귀가 전 머무르며 부족한 학습의 보충과 보호, 여가활동의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해 설립된 아동복지시설이다.



효도공부방은 맞벌이 부부나 조실부모, 기출부모 등 취약 전후의 자녀들이 귀가 전 머무르며 부족한 학습의 보충과 보호, 여가활동의 장을 마련해 주는 아동복지시설이다. (원인: 김일광 목사)

포천시 신읍동 211-7번지로 왕방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효도공부방은 신고시설로 지난 3월 19일 포천시로부터 아동복지시설 관인 1호로 허가를 받아 지역아동센터로 거듭나고 있다.

이 시설에서는 귀가 전 어린이들은 한글, 영어, 수학, 과학, 종이접기, 칼라믹스 및 받아쓰기를 가르치고 있다.

회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린이들의 귀가 전 중식 및 학생들을 위한 커피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제 효도공부방은 대학생 자원봉사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장명자 원장은 “현재 자원봉사 3명의 선생님이 도와주고 있지만, 아이들의 학습 지도에 있어 힘에 부치고 있다”며 “자원봉사 분야 중 학습지도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신고시설로 전환된 이후 포천시로부터 중식비지원을 약속 받았으나 아직 지원 받지 못한 것 같다”며 “교회로서 지역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도 좋지만, 종교적 이미지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김 목사가 효도공부방을 운영하게 된 것에는 남다른 이유가 있다. “18년간 목회생활을 하던 중 지역사회와 아이들과 노인들의 복지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며 “애당초 취지는 어려운 가정을 돕기 위한 취지였으나, 특히 맞벌이 부부 아이들의 결식 상태가 심각한 것을 알고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교회에서 이런 복지시설을 운영한다는 것이 거부감이 들어 어린이들을 맡기는 부모가 덜한 것 같다”며 “교회로서 지역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도 좋지만, 종교적 이미지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후 “빠른 기간 안에 새로운 부지 물색으로 아동센터를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후원: 농협 225047-55-000731 (예금주:지역아동센터 효도공부방) 문의: 031-535-2989 지역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 심터

생각의 차이



석혜승 보문정사 주지

모택동이 죽자 달리아 리마는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였다고 한다.

모택동은 티베트의 입장에서 본다면 철천지 원수며 탐욕의 화신일터인데 그는 애도를 표하였다. 이에 대해 사람들이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가 어찌 이 자리에서 가장된 감정의 위선을 이야기 할 수 있었는가? 내가 그들로부터 얻은 심적 고통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었는가? 하지만 적나라한 현실속에서 일개 약자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참는 것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로인해 진정한 인육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성자의 가르침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진정으로 그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다. 오늘의 적이 영원히 적일 수만은 없는 법, 비록 나에게 무서운 적이라 할 지라도 그 적으로 인해 나에게

생겨나는 선(善)을 더 귀하게 생각하게 되니 그는 더 이상 적이 아니었다.

“~ 때문에”라는 생각과 “~ 덕분에”라는 생각은 사람을 크게 만들기도 하고 작게 만들기도 한다. “~ 때문에”라는 생각은 불평과 불만을 촉진시켜 누군가를 탓하게 하지만 “~ 덕분에”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화해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든다. 그 아름다운 장미도 가시 때문에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시 덕분에 아름다운 꽃이 오래 지킬 수 있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문제는 가시도 꽃도 아니다.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사랑의 그릇이 결정되는 것이다. 필자연락처 031-542-0032

포천중문의대 극단 액터누리 장려상 수상

제15회 경기도 아마추어연극제 처녀 출전

제15회 경기도 아마추어연극제에 처녀출전한 포천중문의대대학교(총장 김병수) 극단 액터누리가 장려상과 개인우수연기상을 수상했다.

안산시가 주최하고 한국연극협회 경기도지회가 주관하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후원한 이번 대회에 포천시 대표로 참가한 포천중문의대 연극동아리 극단 액터누리는 장진 작, 이지영 연출로 「서툰사람들」을 공연해 단체상 분상인 장려상을 수상했다. 개인상으로는 장덕배 역으로 출연한 손지훈 군이 우수연기상을 수상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3일까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부리극장에서 개최된 제15회 아마추어연극제는 도내 21개 시·군 대표 극단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벌였다.

한국예총 경기도 연합회와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제15회 경기도 아마추어연극제에 처녀출전한 포천중문의대대학교 극단 액터누리가 장려상과 개인우수연기상을 수상했다.

제10회 포천시 女性償 시상식

훌륭한 어머니부문 이정순·봉사부문 최계옥

포천시는 여성주간을 맞아 지난 달 30일 여성회관 청성홀에서 박운국 시장과 홍성훈 포천시의회위원장, 김영자 포천시 여성단체협의회장 및 여성단체회원, 각급 기관단체장, 금년도 및 역대 여성상 수상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회 여성주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운국 시장은 포천시 여성상 수상자로 선정된 훌륭한 어머니 부문 이정순 씨와 봉사부문 최계옥 씨에게 상패와 순금 10만 상당의 메달을 수여하고 타의 귀감이 돼 영예의 포천시 여성상을 수상한 것을 축하했다.

이날 이정순 씨(소홀음·49)는 어려서부터 언어장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결혼 후 시부모를 극진히 모시고 교통사고로 걸을 수 없는 남편을 정성껏 보살피며 두 자녀를 훌륭하게 키운 점이 인정돼 훌륭한 어머니부문 상을 수상했다.

또 최계옥 씨(소홀음·53)는 송우5리 부녀회장과 송홀음부녀회장으로서 봉사활동을 하다 포천시 새마을부녀회장을 맡으면서 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 포천시 전역의 소외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한 점이 인정 돼, 봉사부문 상을 수상했다.

한편 포천시 여성상은 지난 95년 10월 조례가 제정돼 금년에 10회째를 맞았으며 이번까지 모두 30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이날 시상식(소홀음·49)은 어려서부터 언어장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결혼 후 시부모를 극진히 모시고 교통사고로 걸을 수 없는 남편을 정성껏 보살피며 두 자녀를 훌륭하게 키운 점이 인정돼 훌륭한 어머니 부문 수상자 이정순 씨에게 상패를 수여하고 있다.



박운국 포천시장이 봉사부문 수상자 최계옥 씨(왼쪽)와 훌륭한 어머니 부문 수상자 이정순 씨에게 상패를 수여하고 있다.

“다시와서 살고 싶은 산촌마을 만들어요”

금동리 지동마을 ‘복합 농촌 관광지’로 개발



지난 6일 지동마을 산촌개발 기본계획 보고회가 포천시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가운데 이관영 지동마을 이장이 소견을 발표하고 있다.

포천시는 금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신북면 금동리 지동마을을 주거환경개선과 마을기반조성, 산촌관광 및 입산물 상품개발 등을 통해 농업과 휴양이 접목된 복합 농촌 관광마을로 조성한다고 지난 6일 지동마을 산촌개발 기본계획 회

고회에서 밝혔다. 지동마을은 포천시청에서 북서쪽으로 약15km지점에 위치하며 마을 남쪽으로는 국사봉, 서쪽으로는 소요산이 있는 산악지로 현재 55호 가구 155명이 거주하고 있다. 주변으로는 신북온천, 열두개울

유원지, 허브아일랜드, 금동계곡 등의 관광지가 개발돼 사람들이 많이 찾지만, 지동마을은 산촌 깊숙이 위치해 있어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어들여 소득원으로 만들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따라서 포천시는 이곳을 복합농촌관광지로 개발하기로 하고 지난해 산림청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해 14억 원의 예산을 배정 받았으며 올해 산촌개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2007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울창한 산림 속에서 청정한 자연을 관광객들에게 제공하면서 모심기, 닭모이주기, 젓소우유짜기, 감자·고구마캐기, 옥수수·갯·버섯따기, 순두부만들기, 산나물채취 등 농·산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며, 지동마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와서 살고 싶은 산촌마을로 변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우연의 지배’라는 하나의 주제로 작품활동을 펼치는 전업작가 강구원씨의 작품 ‘미음으로 세우는 탑’

우연의 지배-마음으로 세우는 탑

8일부터 14일까지 포천반월아트홀서 강구원 작품전

포천시 소흘읍 이곡리 351번지에 작업실을 마련하고 15년째 전업작가로 활동해온 강구원 작가가 ‘우연의 지배-마음으로 세우는 탑’이라는 주제로 순회 전시회를 갖고 있다.

“일생 동안 하나의 주제 ‘우연의 지배’로 작품활동을 하고 싶다”는 강 작가는 “우연의 지배는 생명의 외경사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우연속에는 반드시 필연이 있기 마련이며 어쩌면 이 필연을 표현하고자 노력하는지도 모른다”고 한다.

순회 첫 번째 전시회는 포천반월아트홀에서 지난 8일부터 오는 14

일까지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는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갤러리 라메르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부산광역시 소재 SEE & SEA 갤러리에서 8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전시할 계획이다.

강구원 작가는 자연, 소리, 몸짓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심리와 인식의 문제, 폐사자의 돌과 파편, 탑, 주춧돌 등을 ‘우연의 지배(Incidental Dominion in Life)’라는 주제로 작업하고 있으며 9회와 10회와 100여회의 그룹전에 참여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혜정이를 도와주세요”

신북초 혜정이 돕기 일일차집 열려



지난 7일 혜정이 돕기 동참한 신북초등학교 관계자와 박운국 포천시장이 혜정의 쾌유와 지역사회의 도움을 호소했다(앞줄 좌부터 차례로 포천중 교장, 김기용 신북초 교장, 이우미 어머니회장, 박운국 포천시장).

신북초등학교(교장 김기용)와 신북초 어머니회(회장 이우미)는 지난 7일 포천시 신읍동에서 생생물림성 재혈로 골수 이식이 필요한 어린이 돕기 일일차집을 열고 혜정(6년)이의 쾌유를 기원했다.

현재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투병중인 혜정의 수술비는 3천만원 정도 들어갈 예정이며 이번 일일차집을 통해 1천여만원의 성금이 전달될 예정이다.

혜정이는 다행히 두 동생의 골수가 일치해 이를 기증 받아 수술할 예정이며 현재 뇌외과

과열로 반신마비 상태라 경과를 지켜본 후 수술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일일차집은 신북초 어머니회 회원 30여명이 봉사에 참여했으며, 장소를 제공한 음식점 토끼에서 기본재료와 인원을 제공해 치러졌다.

이우미 신북초등학교 어머니회장은 “비록 수술비에는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지만 혜정의 쾌유를 위해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도움이 혜정이를 살릴 수 있는 길이다”며 혜정이 돕기에 동참을 호소했다.

지역배 기자 94spice@hanmail.net

불법 광고물 시민보상제 추진

포천시가 올 하반기 동안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를 실시한다. 수거대상지역은 포천시 전지역이며 보상대상 광고물은 ▶가로수, 가로등, 신호등, 상가 등에 부착된 플래카드와 벽보 ▶보도, 가드레일에 설치된 상업용 플래카드 ▶점포 앞 보도에 설치된 깃발형 플래카드 ▶벽면이용 플래카드 ▶주요도로변, 주택밀집지역 내 벽면이용 벽보 ▶유형업소 주변 퇴폐전단 등이다.

단, ▶부착되지 않았던 벽보 및 전단지 ▶상업용 게시대에 부착된 플래카드 ▶시청에 신고를 하고 설치된 각종 플래카드 ▶타 시·군에 설치된 광고물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민들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면 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기준금액은 폭 6m 내외의 대형 플래카드 1천원, 폭 2.5m이하의 소형플래카드 500원, 벽보는 1매 당 200원, 스티커를 포함한 퇴폐전단은 1매 당 50원 등이다.

또 벽보, 퇴폐전단, 스티커 부착 및 배포자를 최초로 신고해 검거했을 경우에는 2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단, 1일 1인에 대해 5만원 이상 지급하지 않으며 학생인 경우에는 보상금 대신 학용품을 증정하거나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해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보다 효율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보상제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히고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지역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서범석 육군 모 부대 항공대장이 일동중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용기와 희망 심어줘

서범석 항공대장 일동중학교에 장학금 전달

평소 군 복무에 충실하고 있는 부대장이 관내 학교에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육군 모부대 항공대장 서범석 소령이다. 서 소령은 지난 7일 오전 일동중학교 교정 앞에서 이 학교 학생 2명에게 각각 10만원씩 2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열심히 공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어려운 시기에 받은 장학금이 더욱 고마운 마음”이라며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남을 도울 수 있는 지도자로 성장하겠다”고 약속하

기도 했다. 서 소령은 “부대 간부들과 함께 심시일반 성금을 모아 어려운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 소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며 학생들에게는 매 분기별로 장학금을 전달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처럼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게 된 동기에 대해 서 소령은 “어떻게 공부했던 어린시절이 기억이 나 학생들에게 돕게 됐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